

廣島大學 大學教育研究센터

李 中
(高麗大 教育學科)

1. 머리말

廣島大學의 ‘大學教育研究센터’는 1972년 5월 1일 日本의 ‘國立學校設置法施行規則’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學內共同教育研究施設’로서 설치되었다. 대학·고등교육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公的 專門機關으로서 日本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唯一의 기관이다.

센터 관계자들의 自評을 들으면, 센터의 조직과 사업활동이 아직도 未洽한 점이 많아,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長期間의 지속적인 共同努力이 필요함을 솔직하게 지적한다. 필자가 센터 주최의 1982년 國際세미나(廣島와 東京)에 초청講演을 위하여 참가했을 때 그와 같은 自省과 미래에 대한 意志의 표명에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하기야 美國 같은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廣島大學 센터의 實情은 매우 미약한 것이 명백하다. 美國의 경우, 이미 1960년대 후반에 있어서 고등교육에 관한 大學院課程(주로 Ph. D. 코스) 개설의 大學이 67개, 고등교육에 관한 專門研究機關이 17개에 달하고 있었고, 그 시설이나 연구체제는 단연 他國에 앞서 있다.

여하튼 센터 관계자들의 謙양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 센터의 일에 참여해 온 사람들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協同努力과 그 성과는 참으

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廣島센터의 先例는 우리의 자각과 분발의 素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1982년까지의 資料(大學教育研究센터…10년의 발자취, 廣島大學)를 중심으로 센터의 實相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2. 研究所 發展의 過程

1) 大學問題調查室의 設置

1969년의 廣島大學紛爭의 渦中에서 탄생한 ‘廣島大學改革委員會’는 정력적인 활동의 결과로 1969년 9월 18일에 ‘當面の改革에 관한 建議·第1次’를 學長에게 제출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당면적 개혁과제의 하나로서 ‘대학문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기관의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1969. 9. 28).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의 일이었다.

우선 學內에 ‘大學問題調查室’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장차 정식으로 운용될 연구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專門的 調查研究機關이 설치되었을 때 그 임무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구상되었다.

- ① 國內외의 大學에 관한 資料의 수집과 분석
- ② 廣島大學의 연구·교육·관리운영 등에 관

한 조사·분석

- ③ 장차 필요하게 될 他大學과의 連合方式(人的·物的 交流, 學點單位の 相互認定 등)에 관한 조사연구
- ④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理論的 研究, 學問論, 制度比較, 史的 考察, 統計, 學生에 관한 조사 연구, 각 분야에 있어서의 고등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연구

調査室의 목적은 제1차 건의의 기본방침에 따라 '全學的 시설로서 대학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일'(調査室規程 2條)로 하고,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조사실의 당면 임무로 삼았다.

- ① 국내외의 大學에 관한 資料의 수집과 그 分析檢討
- ② 廣島大學의 연구·교육·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사 연구
- ③ 각 部局의 專門教育에 관한 교육계획, 교육방법, 시설·설비에 관한 조사 연구
- ④ 필요에 따라 대학 직원의 研修의 일부에 관한 협력(調査室規程 附則에 관한 합의사항)

조사실의 발족에 즈음하여 全學敎官 定員 중에서 조수 2명의 定員流用이 인정되고, 全學共通運營費에서 조사실 사업비로서 300만 엔이 배당되었다. 이러한 이례적인 全學的 지원에 기초한 '學內措置'에 의하여 조사실이 발족하게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1970년 8월 조사실은 부족하나마 要員의 진용과 시설을 갖추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고, 1971년 4월에는 조수 1명의 追加配置도 얻게 되었다.

2) 大學敎育研究센터의 草創期活動

大學問題調査室은 '學內措置'로서 발족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실의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초 연도에는 '大學問題 資料센터'가 기획되고 다음 해에는 '大學敎育研究센터'의 설치가 概算要求로서 제출되었다. 이 요구사항은 정부 예산에 計上되고, 1972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助敎授 1명, 事務官 1명의 정원 배치와 아울러 사업비 185만 엔의 交付를 받게 되었다. 學內措置로서 발족한 조사실은 2년만에 국립대학의 '學內共同敎育研究施設'(文部省令 제19호)로서 制度化되었다. 이 센터의 설립은 그 규모

가 크지 않았으나, 대학 자체의 문제를 研究調査하는 대학의 公的 專門機關이 日本에서 최초로 탄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만큼 학내외로부터의 기대도 컸다.

센터의 목적은 '大學內외의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대학·고등학교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일'(센터規程 2條)로 규정되고, 센터의 당면 업무로서 ① 대학·고등교육의 기본문제에 관한 연구, 특히 대학 내외의 연구자의 협력에 의한 프로젝트에 따른 共同研究, ② 대학·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資料의 수집 정리, ③ 대학·고등교육에 관한 知的 情報의 제공, 특히 大學改革을 위한 寄與, ④ 대학·고등교육에 관한 全學的 敎育·研修機能의 分擔 등이 결정되었다. 센터長, 主任 및 學內研究員으로는 조사실의 要員이 그대로 머물게 되고, 定員화된 專任助敎授는 學外에서 임용되었으며, 學外에서 협력하는 客員研究員으로는 전국의 대학·연구소로부터 각 영역의 專門研究者를 영입하여 그 수가 27명에 달했다. 專任 4명(조교수 1, 조수 3), 併任 8명(센터장, 주임, 연구원 6), 客員研究員 12명, 事務職員 3명(사무관 1, 사무보좌원 2) 등이 센터 발족 당시의 정원이었다.

센터의 초창기 연구활동에서 가장 중요시된 것은 대학·고등교육의 기본문제에 관한 共同研究프로젝트의 추진이었다. 첫 해에 벌써 4개의 프로젝트(① 대학생에 관한 연구, ②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③ 대학원·연구 체제에 관한 연구, ④ 대학의 조직·운영에 관한 종합적 연구)에 착수했고, OECD, CERI 國際共同研究事業에 日本代表로서 센터要員이 참가하고 있다.

共同研究프로젝트와 동시에 각기 研究要員에 의한 조사연구도 진행되었다. 共同프로젝트나 個別研究의 성과는 센터의 간행물 「大學論集」(연 1회 간행), 「大學研究 노트」(연 5~6회 간행)에 주로 公表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활동과 병행하여 研究센터에서는 연 1회 '研究集會'를 개최하여 專任研究員, 學內併任研究員, 客員研究員 상호간 교류에 노력해 오고 있다. 집회에서는 學內 公開講演, 統一테마 중심의 研究發表, 심포지움 등을 구성하고, 그 성과는 「大學研究노트」에 '研究員集會의 記錄'으로서 수록한

다. 이외에도 대학문제에 관한 공개세미나 혹은 연구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다.

초창기의 研究센터로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대학·고등교육 관계 문헌의 수집이었고, 文獻資料室에서는 ① 국내외의 대학·고등교육 관계의 중요 문헌, ② 국내의 중요 대학의 要覽, 凱린더類, ③ 국내외의 중요한 대학개혁 관계 문서 등의 수집 정리 등에 진력해 오고 있다.

3) 國際交流中心의 活動

초창기에 정착한 ① 共同研究프로젝트, ② 個人研究, ③ 研究員集會 등의 활동과 더불어 197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국제적 연구교류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수차에 걸친 國際세미나의 개최, OECD, CERI(經濟協力開發機構, 敎育研究革新센터)의 國際共同研究事業에의 참가, 해외의 저명한 고등교육 연구자의 초빙, 해외 학술 조사의 실시 등이 계속되었다.

1976년부터 高等教育 國際比較研究를 위한 정부예산이 廣島大學에 교부되게 되어, 센터가 그 企劃 및 實施上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1976년 4월에는 '미래의 高等教育시스템'을 주제로 하여, 외국에서는 ICED(國際敎育開發協會, 뉴욕)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日本에서는 센터 내외의 연구원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를 초빙하여 제 1회 廣島 高등교육 國際세미나를 개최했다. 1980년에는 제 2회, '81년에는 제 3, 4회, '82년에는 제 5, 6, 7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매년 研究센터의 國際研究交流活動은 활기를 더해 오고 있음을 본다.

1970년대 후반에는, 諸外國의 고등교육에 관한 調査旅行이 조직적으로 기획·실시되었다. 처음에는 개인 부담으로 韓國大學調査가 2회('77, '79년) 실시되었으나, 1977년부터 포드財團에서 4년간에 걸쳐 국제연구·교류사업의 일환으로 '大學의 國際化'의 테마를 위한 연구조성금이 교부되어, ① 국제교류, ② 理工系 대학교육, ③ 지역사회와 대학 등의 관점에서 美日比較研究가 실시되었고, 제 4차 연도에는 東南亞 諸國의 고등교육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國際研究交流活動은 1970년대 전반기 이래의 日本 國內 共同研究프로젝트와의 연

계하에 실시되어 왔다. 특히 '大學의 國際化' 프로젝트는 1977~80년 사이에 외국인 교원 조사, 대학원 유학생 조사, 기타 문헌목록의 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研究센터의 국제교류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시에 '高等科學技術敎育프로젝트'나 '大學과 地域社會프로젝트'도 센터의 國際研究交流活動을 측면 지원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4) 1980년대의 活動과 展望

1980년에는 1970년대 후반에 政府豫算化된 '國際共同研究費'가 계속 廣島大學에 교부되고, OECD, CERI의 공동사업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革新에 관한 比較研究'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1980년도에 센터의 研究프로젝트 주제를 '大學 커리큘럼과 敎育方法의 革新'으로 정하고, 대학·고등교육의 내용·방법에서의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研究員集會에 있어서도 '大學에 있어서의 敎育機能(teaching)을 생각한다'('80년), '大學에 있어서의 敎授와 學習'('81년), '대학敎育과 커리큘럼'('82년)을 테마로 하여 이 분야의 연구 深化를 기도했다.

'80년대에 센터要員의 진용도 확충되었는 바, '82년 현재로 專任敎官 8명, 學內研究員 17명, 客員研究員 30명, 事務職員 4명 등 59명에 이르게 되었다. 센터 발족 후 10년만에 要員은 2배를 넘게 되었으며 해마다 그 진용의 補強을 계속해 가고 있다.

센터는 1980년대의 當面課題로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廣島大學의 學內共同敎育研究施設로서 대학문제 조사실 시절에 가장 중요시했던 廣島大學改革에의 寄與라는 과제와 오늘날 내외로부터 기대되고 있는 全國 共同 利用의 고등교육 연구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양립·조화시키느냐의 과제

둘째, 대학·고등교육에 관한 국제적인 共同研究프로젝트의 추진과 專任研究者의 個別研究를 조화시키는 과제

셋째, 해마다 증대하는 센터의 諸業務의 원활한 수행과 증원되는 研究要員의 연구수행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施設 確保의 문제

내제, 센터의 장래 發展計劃의 과제로 그 구상으로서는 ① 大學論(歷史, 原理), ② 大學教育論(내용·방법) ③ 比較高等教育論, ④ 高等教育制度政策論 등 4개 연구영역의 확립과 客員研究部門으로서 國內客員研究員의 강좌 및 外國人客員의 강좌 설치 등이 있다. 또 情報部門으로서 高等教育情報資料室 기능의 확충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다.

3. 組織과 事業·活動

1) 組織

大學教育研究센터는 廣島大學의 어느 部局에도 속하지 않고 全學共通의 '學內共同教育研究施設'의 하나로서, 센터의 기본 원칙은 全學의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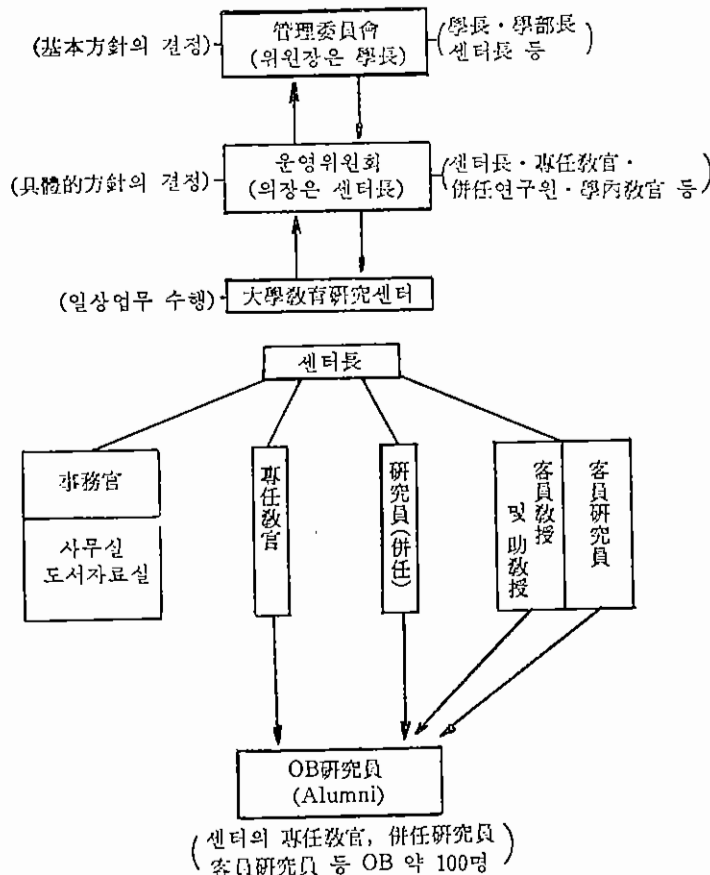
局을 대표하는 '管理委員會'(광도대학의 學長·學部長 등 19명으로 구성)에 의하여 정한다. 구체적인 방침은 全學으로부터의 대표와 센터의 전임요원 및 연구원의 대표로 구성되는 '運營委員會'(16명)에 의하여 심의된다.

일상적인 여러 가지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내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요원으로 구성되는 센터내의 회의에서 심의되고, 이 회의의 의견은 運營委員會 등에 반영된다.

1982년 현재 管理委員會는 學長을 포함하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運營委員會는 센터장을 포함한 17명으로 되어 있었다. 센터 要員陣容을 구성하는 準據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센터장 : 2년을 임기로 하고, 再任될 수 있다. 廣島大學의 전임교수 또는 조교수 가운데에서 學長이 選考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價

〈그림 1〉 大學教育研究센터 機構圖(1982년 4월 현재)



예르는 '全學共同施設'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의 각 學部에서 돌아가면서 선출되고 있다.

- 專任教官: 대학의 教授·助教授와 약간 명의 助手로 구성된다.
- 學內研究員: 專任教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 2년에 再任될 수 있다. 慣行的으로 연구원은 4년을 임기로 센터의 각종 研究活動에 참여하고 있다.
- 客員研究員: 廣島大學 이외의 學外研究者 가운데서 학장이 위촉하여 센터의 사업에 협력을 요청한다. 임기는 규정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으나 再任될 수 있으며 관행적으로 併任研究員과 같이 4년간 계속적으로 위촉되고 있다. 또 大學敎官이 아닌 民間團體要員이나 個人도 客員研究員으로 위촉될 수 있다.
- 客員敎授, 助敎授: 客員研究員 가운데서 數週間 또는 數個月間 센터에 체재하면서 공동연구나 개인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교관이다. 매년 4~6명의 객원연구원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경비는 센터의 事業費에서 지출된다.
- 事務職員: 事務系와 司書系로 구분된다. 사무계는 일상의 庶務·會計와 學外渉外業務를 담당하고, 사서계는 고등교육에 관한 日本 唯一의 專門圖書館을 위한 文獻·情報의 수집, 정리에 전념한다.

2) 事業·活動

高等教育研究센터의 사업 실적이나 활동의 현황은 대략 ① 研究活動, ② 出版活動, ③ 文獻·情報活動의 셋으로 구분하여 이해될 수 있다.

(1) 研究活動

센터의 연구활동은 共同研究프로젝트, 個人研究, 研究員集會, 國際交流活動 등으로 大別될 수 있다.

a. 共同研究프로젝트

學內研究陣에 의하여 특정의 연구과제를 정하면 센터의 併任·客員으로 구성되는 적극적인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프로젝트팀을 조직한다. 研究期間은 2~4년이며 연구가 끝나고 성과의 발표를 마치게 되면 解散하고 다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한다. 하나의 共同研究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수는 이제까지의 관례를

보면, 15~40명 정도의 경우가 많고 매년 하나 이상의 共同研究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있다.

b. 個人研究

센터의 연구진은 專任教官뿐만 아니라 併任研究員, 客員研究員도 모두 어떠한 형식으로는 대학·고등교육 영역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연구자는 저마다의 개인연구 과제를 추구한다.

c. 研究員集會

매년 1회의 研究員集會는 실질적으로는 日本 전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專門研究者가 모이는 '高等教育學會'와도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으며, 공동의 研究關心下의 전국적 교류가 실현되는 場으로 되어 있다.

d. 國際交流活動

센터는 日本의 高等教育研究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 되어 있기 때문에, 内外의 요청에 의하여 여러 가지 國際交流活動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제세미나의 개최와 각종 국제회의에의 참석이 그것이다. '76년 이후 '82년까지 7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8회에 걸쳐 국제회의에 센터의 연구진이 참석하고 있다.

(2) 出版活動

센터의 연구활동의 성과는 「大學論集」(대학·고등교육에 관한 학술연구논문을 게재하는 센터의 紀要, 연 1회), 「大學研究노트」(대학·고등교육에 관한 研究調查報告, 文獻目錄(解題), 重要文獻의 번역 등을 게재한다. 연 5~6편), 「코리그」(大學研究센터 通信...센터의 연구활동을 소개하고, 아울러 同僚연구원 상호간의 交流를 도모하는 뉴스레터), 英文出版物 등으로 刊行된다.

a. 大學論集

1973년 이후 '86년까지 16집을 간행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실적을 보면 每集에 7~17편의 論文이 게재되어 오고 있다. 日本, 亞細亞地域 및 歐美地域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이 이미 백 수십 편 축적되어 오고 있다.

b. 大學研究노트

執筆資格은 「大學論集」의 경우와 같이 센터의 專任·併任·客員研究員 및 前任研究員으로 하나, 편집위원회가 特別寄稿를 인정할 때에는 此

限에 不在이다. 게재원고는 未發表의 것으로 400字 원고지 300매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약 12萬字 분량의 읽기 좋은 小冊字가 된다. 그 내용은 日本을 중심으로 하나 세계 각국의 大學·高等敎育의 구체적인 諸問題에 관해 학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71년 이후 '82년까지 52호를 간행하고 있는 실적으로 미루어 볼때, 이미 70권이 넘는 「大學研究노트」가 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c. 英文出版物·其他

1974년 이후 매년 1권 내지 2권의 英文出版物을 간행해 오고 있다. 팜플렛형과 小冊字형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이 共同研究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 또는 高等敎育에 관한 國際세미나의 報告집을 英文으로 간행한 것이다.

「코리그」는 1975년 이후 '81년까지 10호가 나왔고, 1984년에 13호가 나왔으니 이제 15회 이상의 刊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研究員集會의 記錄」, 「大學敎育研究센터 所藏文獻目録」(1972년), 「大學·高等敎育關係 文獻目録」(1982년) 등이 간행되고 있다.

(3) 文獻·情報活動

센터 創設 이래, 文獻情報의 수집과 활용에 全力해 오고 있으며, '대학·고등敎育'에 관한 전문도서관의 충실화를 기하고 있다.

① 圖書·雜誌·新聞

'82년 현재 도서의 소장은 12,022점(日書 7,356점, 洋書 4,666점)으로 일본 및 외국의 대학·고등敎育 관계의 문헌을 망라하고 있다. 雜誌는 115종류(日本雜誌 57종, 外國雜誌 58종)의 敎育 특히 대학·고등敎育 관계의 專門誌가 포함되어 있다. 新聞은 19종류(日語 15점, 外國語 4점)인데 新聞 중에는 韓國의 「東亞日報」와 北韓의 「勞動新聞」이 포함되어 있다.

② 特殊콜렉션

a. 高等敎育關係 新聞記事 : 日本 國會圖書館의 新聞스크랩方式을 모델로 하되 독자적인 分類項目에 의해 정리하고 있다. '82년 현재, 3만 2천 점.

b. 學生便覽·講義要綱 : 기관별로 분류되어 大學敎育(內容)의 분석에 援用된다(2,540점).

c. 外國 大學要覽·캘린더 등 : 세계 50개국, 500대학 이상의 大學要覽(案內)이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4,691점). 또 美國 全大學(community college 포함) 및 主要國의 大學要覽이 Microfiche로 수집되어 있다(4,691점).

d. 高等敎育關係資料·팜플렛 등 : 單行本 이외의 資料의 수집(4,222점).

e. 기타 : 도서관에는 ERIC 情報, OECD 出版物의 全部와 獨逸大學史콜렉션 448점 등이 갖추어져 있다.

4. 맺는 말

필자의 생각으로는 廣島大學의 '大學敎育研究센터'는 이제 미래 발전을 위한 기초작업을 끝내고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다. 센터의 발전 과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성실한 協同努力을 합리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人間的 紐帶關係가 존중되는 日本의 學問研究 風土를 感知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성실하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관계에 있어서 秩序를 확보하는 슬기가 있어 보이는 것이다. 日本의 國력을 배경으로 한 意慾的인 視座에서 생각한다면 매우 불충분하지만 또 어려운 諸般與件 속에서 꾸준히 업적을 축적해 오고 있는 센터의 장래는 밝은 것으로 믿어진다. *